

# 地名의 借字 表記에 대한 解讀

- 제주지역 '오름' 이름(山岳名)의 語學的 分析을 중심으로 -

## 오 창 명\*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借字體系와 運用의 實例
3. 오름 이름의 어학적 분석
4. 마 무 리

## 1. 들어가는 말

최근에 고유 지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借字 표기로 된 지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古地圖, 古文書, 碑石, 그리고 族譜 등의 지명 표기가 대부분 한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자 표기를 고유의 이름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吏讀 표기 또는 借字 표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확보하지 않은 채, 漢字 표기로 된 지명을 억지로 고유어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명의 한자 표기는 한자의 釋[또는 訓]·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표기까지도 한자를 해석하듯이 설명하려는 사람이 이외로 많다.

이 글은 이런 연구자들에게 警鐘을 울리려고 준비된 것이다. 지명의 한자 표기가 한자의 釋·음과는 상관 없이 쓰이는 경우와 상관을 가지고 쓰이는 경우가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몇 개의 오름(岳) 이름을 중심으로 이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곧 현재 알려진 제주도의 옛 邑誌와 古地圖, 碑石 등에 나타나는 '오름' 이름의 한자 표기와 그에 대응되는 중·고대국어와 제주도방언 등의 고유어를 대응시켜서, '오름' 이름[岳名]을 語學的으로 分析하려고 한 것이다.<sup>1)</sup>

## 2. 借字體系와 運用의 實例

우리말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진 후에도,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습성이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고유어의 地名·人名 등을 문서 등에 표기할 때는 주로 한자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한글 창제 이전에 사용했던 漢字借用表記法<sup>2)</sup>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선 지명 표기의 몇 예를 살펴보자.

古地圖 등에서 제주시 영평동의 옛이름인 '가시나물'을 '靛南·加叱南·靛木·加叱木·加時·加南物·加時羅勿', 제주시 노형동 '넓은드르'를 '廣坪·廣野', 아라2동의 '걸마로(변화형은 '걸머리')'를 '鬪尔路·鬪馬路·巨馬路·巨馬老·巨乙馬' 등으로 표기하였다. '갓남물·가시나물(혹은 '가시남물)'은 '가시남(가시나무) 물[水]'의 뜻이고, '넓은드르'는 '넓은 들'이라는 뜻이고, '걸마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걸[渠] ㅁㄹ[旨]'의 뜻으로 보인다. 靛·加叱·加 등은 '갓', 加時는 '가시', 木과 南은 '남·냘>나무[木]', 物과 勿은 '물[水]'의 뜻이다. 廣은 '너븐>넓은'의 표기이고,

1) 주로 참고한 자료와 옛지도는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권151, 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권38)/『南槎錄』(1603?)/『耽羅志』(1652)/『耽羅巡歷圖』와 『南宮博物』(1702)/『耽羅地圖』(1709)/『濟州三邑都摠地圖』(1760)/『濟州大靜旌義邑誌』(1780년경)/『濟州三縣圖』/『濟州三邑全圖』/『濟州郡邑誌』(1899)와 『旌義邑誌』(1899), 『大靜郡邑誌』(1899) 등.

제주도의 고지도는 최근에 발간된 『濟州의 옛地圖』(199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2) 중근대의 古地圖나 古文書, 碑石 등에 한자로 표기한 지명 표기를 고대의 釋借 표기와는 다른 漢譯名 표기(이기문(1991), pp.487-489)로 보기도 하고, 固有名詞의 차자 표기의 버릇에 기인한 것(허용(1974), p.34)으로 보기도 한다.

坪과 野는 ‘드르>들’의 표기이다.

古地圖와 古文書 등에 서귀포시 중문동 서쪽을 가로질러 흐르는 ‘중문내[中文川]’를 ‘星川’, 또는 ‘別老川·邊老川’, 연동의 ‘검은오름’은 ‘今勿岳·巨文岳·巨門岳’, 또는 ‘黑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星은 ‘별·벼로’의 표기, 別老·邊老는 ‘벼로’의 표기, 川은 ‘내’의 표기이다. 이때 ‘벼로’는 崖[峭崖벼로…懸崖 두절흔 벼로 <한청 1:39>]의 뜻이다. 곧 ‘벼로내’는 ‘절벽 또는 벼랑을 이룬 내’라는 뜻이다. 今勿은 ‘그물’의 유사어 ‘거름>검을’의 표기, 巨文·巨門은 ‘거름>검은’의 표기, 黑은 ‘검은’의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표기이다.

제주양씨의 한 족보에 ‘安徳面 上倉境 九名生水田’이라고 묘의 위치를 표기하였다. 九名生水田은 ‘구명 난 물왓’의 借字 표기이다. ‘구명’은 ‘구멍’이라고도 하는데, ‘장마가 지거나 비가 많이 올 때, 평지나 밭에서 솟아나는 물. 또는 물이 솟아나는 곳’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난’은 ‘솟아난[生·出]’의 뜻이고, ‘물왓’은 ‘물밭’의 뜻이다. 곧 ‘九名生水田/구명 난 물왓’은 ‘구명이 솟아난 물밭’이란 뜻이다.

이들을 살펴보면, 지명 표기에 한자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과 음을 살려 쓴 한자가 있는가 하면, 원래의 뜻과 음과는 무관하게 쓴 한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것을 가지고 借字의 운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廣은 ‘넙->넓-’의 훈에 관형형어미가 붙은 ‘넙은>넓은’의 뜻으로 쓰였고, 坪과 野도 ‘드르>들’의 뜻으로 쓰였다. 木은 ‘남·냘>나무’, 川은 ‘내’, 生은 ‘난’, 田은 ‘왓>밭’, 黑은 ‘거름>검은’, 岳은 ‘오름’의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우리말 표기에 사용하는 한자를 訓으로 읽으면서 그 원뜻도 살려서 쓰는 借字를 訓讀字<sup>3)</sup>라 한다.

星은 ‘별·벼로’의 표기이다. 이들 한자는 고유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쓰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자의 訓으로 읽되 訓과는 상관없는 표음부호로만 사용하는 借字를 訓假字라고 한다. 訓假字에는 ‘벼로’를 나타내

3) 借字의 명칭은 남풍현(1981:15)에 따른다.

는 暹과 같이, 우리말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한 한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차자 표기를 해독할 때 주의해야 한다.

九名은 ‘구명·구멍’, 鬪馬路·鬪尔路·巨馬路·巨馬老는 ‘걸마로’, 罷과 加時는 ‘갓’과 ‘가시’, 南<sup>4)</sup>은 ‘남’, 物과 勿<sup>5)</sup>은 ‘물’, 別老·邊老는 ‘벼로’, 今勿은 ‘거물’, 巨文·巨門은 ‘거문>검은’의 표기이다. 이들은 모두 한자의 음으로 읽으면서도 한자의 원뜻을 살려쓰지 않고 표음부호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借字를 音假字라고 한다. 音假字에는 鬪과 같이 ‘걸’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巨와 乙과 같이 음의 일부, 곧 ‘걸’의 ‘거’와 ‘르’ 표기에 사용되는 것도 있고 羅物, 巨門·巨文과 같이 ‘나물(남/木+물/水)’, ‘거문(검/黑+은)’과 같이 연철을 반영한 표기도 있으므로, 해독에 주의해야 한다.

龍頭는 제주시 용담2동의 ‘용머리’의 표기이다. ‘용’을 나타내는 龍과 같이,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서 그 원뜻도 살려 쓰는 借字를 音讀字라고 한다.

### 3. 오름 이름의 어학적 분석

#### (1) 노로손이오름

‘노로손이오름’은 제주시 연동 ‘검은오름’ 남쪽에 있는, 해발 611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탐라지』(제주목, 산천)에 “勞老客岳:在州南十八里(‘노로손이오름’은 제주 남쪽 18리의 거리에 있다.)”,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 ‘獐遜[노로손이]’, 같은 책의 ‘제주조점’과 ‘병담범주’, ‘호연금서’ 조에 ‘獐遜岳[노로손이오름]’, 『남한박물』(지지)에 “勞老客:在州南十八里(‘노로손이’는 제주 남쪽 18리의 거리에 있다.)”, 1709년의 『탐라지도』

4) 南이 ‘남(木)’의 음가자로 쓰인 예는 『계림유사』의 고려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木曰南記(계림유사). 木과 南記와의 대비에서, 南記는 ‘나무’를 뜻하는 중세어 ‘남’의 음가자 표기임을 알 수 있다.

5) 勿이 ‘물’ 물[水]의 음가자로 쓰인 경우는 신라의 지명 표기에도 나타난다.

泗水縣 本史勿縣 景德王改名 今泗州(삼국사기)(권34, 잡지3, 지리1). ‘史勿縣’과 改名の ‘泗水縣’과의 대비에서 ‘泗’와 ‘史’, ‘勿’과 ‘水’가 대응됨을 알 수 있다. ‘勿’은 ‘물’ 물의 음가자로 쓰였으며, 중세국어 ‘물[水]’과 일치한다.

와 1770년의 『제주삼읍도총지도』, 18세기경의 『해동지도』(『제주삼현도』) 등에 ‘獐孫岳[노로손이오름]’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석에는 ‘獐岳[노로오름], 魯老客峰[노로손이오름], 獐手岳[노로손이오름], 노리손이’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오름 주변에는 예로부터 노루가 많아서, 노루를 쏘면서 사냥하던 오름이라는 데서 ‘노로손이오름’이라 했다고 한다.

勞老·魯老是 ‘노로’의 음가자 표기이고, 獐은 ‘노로’의 훈독자 표기이다. ‘노로’는 ‘노루[獐]’의 중세국어이다. ‘노리’는 ‘노로’의 음운변이형으로, 지금은 ‘노로’보다 ‘노리’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노로 爲獐<훈민-원, 해례:24>, 獐 獐 노로 장<신합, 상:13>

客과 手는 ‘손’의 훈가자 표기이고, 孫·遜은 ‘손’이 음가자 표기이다. ‘손’은 동사 ‘소다·쁘다>쏘다[射]’의 어간에 관형형어미 ‘-ㄴ’이 붙은 것이다.

客은 손이라<월석 13:25>, 손 爲手<훈민-원, 해례:25>

孫 손즈 손<유합-송광사본>, 遜 겸손 손<신증-나손본>

擲은 술 씨라<월석 14:61>, 射 擲 사<백련 15>

岳은 ‘오름·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제주도 방언에서 岳이 ‘오름>오름’으로 읽힌다는 것은 일찍부터 언급되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 “俚語…以岳爲吾老音(사투리로…岳을 ‘오름’이라 한다.)”, 『탐라지』 ‘풍속’ 조에 “以岳爲兀音(岳을 ‘오름’이라 한다.)”, 이형상의 『남환박물』 ‘지지’ 조에 “方言稱岳曰兀音(방언으로 岳을 ‘오름’이라 일컫는다.)” 등의 기록이 그것이다. 吾老音은 ‘오름’의 음가자 표기이고, 兀音은 ‘오름>오름6)’의 음가자 표기이다. 이는 중세국어 ‘오르다’의 명사형 ‘오름’일 가능성이 짙다.<sup>7)</sup> 나아가 향가인 『해성가』에 보이는 ‘岳音(오름)’이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그것과 같은 표기라는 것도 小倉進平, 梁柱東 등<sup>8)</sup>에서 제기된 후, 하나의 정설로 굳어졌다. 그렇다면 이 어휘는 신라어

6) 이기문(1985)에서는 吾老音은 ‘오름’으로, 兀音은 ‘오름’으로 읽고, 吾老音(오름)이 兀音(오름)보다 고행인 듯한 점이 주목된다고 하였다.

7) 양주동은 (1942:584)에서 岳은 ‘오름’으로, ‘오름’은 ‘오르-’의 명사형이라고 했고, 최범훈은 (1980:18:1983:186)에서 ‘오름’은 중세국어 동사 ‘오르다’의 명사형 ‘오름’의 변이형이고, 몽고어 oroi(上頭·頂上), urguho(登昇), ula(山) 등과 계통론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의 잔영이라고 할 수 있다.

三花矣岳音見賜烏戶聞古/三花의 오름 보시을 듣고<擘星歌>(김완진 해독)  
爰 오를 등<신합, 하5>  
넛마리 닐오더 어딘 일 조초미 노픈 더 울음 곧고=古語에 云從善이 如登하고  
<번소8:2>

결국 勞老客岳·獐孫岳·獐遜岳·獐岳·獐手岳·魯老客峰 등은 모두 ‘노로손오름’ 또는 ‘노로손이오름’의 표기임을 알 수 있다. 곧 ‘노루를 쏜 오름’이라는 뜻이다. ‘노로손이’의 ‘-이’는 명사형성접사이고, ‘노리손이’는 ‘노루손이’의 음운변이형이다.

1995년 국립지리원 발행의 5000분의 1지도와 1989년 제작된 제주도도로망도, 그리고 제주시도시계획총괄도 등에 ‘노루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노로손이’의 잘못된 변음을 반영한 표기이다.

(2) 바매기오름(알바매기·웃바매기)

‘바매기오름’은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오름을 일컫는다. 선흘리사무소 남쪽에 있는 두 개의 오름을 아울러 일컫는 이름으로, 1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북쪽에 있는 오름을 ‘알바매기(표고 393.6미터)’라 하고, 남쪽에 있는 오름을 ‘웃바매기(표고 416미터)’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 “破磨只岳:在州東南四十五里 周十八里(‘바매기오름’은 제주 동남쪽 45리의 거리에 있다. 둘레는 18리이다.)”, 『탐라전도』(영남대 박물관)에 ‘破磨只岳[바매기오름]’<sup>9)</sup>, 『탐라순력도』(한라장측) 등에 ‘夜漠岳[바매기오름]’, 『제주지도』(승실대 박물관본)에 ‘上夜莫岳[웃바매기오름]’, ‘下夜莫岳[알바매기오름]’,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삼읍전도』 등에 ‘上夜漠只[웃바매기], 下夜漠只[알바매기]’, 『해동지도』(『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전도』 등에 ‘上夜漠岳[웃바매기오름], 下夜漠岳[알바매기오름]’,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上軋[웃-], 下軋[알-]’, 비석 등에 ‘所磨其岳[바매기오름]’, ‘栗岳[밤오름]’, ‘上栗岳[웃

8) 小倉進平(1924). 『郷歌及吏讀の研究』. p.218.

梁柱東(1942). 『朝鮮古歌研究』. p.584.

9) 『조선강역총도』(서울대 규장각)에는 ‘破가 탈락한 ‘磨只岳’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밤오름], ‘下栗岳[알밤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上은 ‘웃(上 웃 상<신함,상:2>)’의 혼독자 표기이고, 下는 ‘알’의 혼독자 표기이다. 破는 ‘파’ 또는 ‘바’의 음가자 표기이다. 夜는 ‘밤’의 혼가자 표기, 栗은 ‘밤’의 혼가자 표기, 所는 ‘바’의 혼가자 표기, 麼는 ‘마’ 또는 음운변이 된 ‘매’의 음가자 표기, 漠은 ‘막’ 또는 음운변이 된 ‘맥’의 음가자 표기, 只는 ‘기’의 음가자 표기로 이두나 향찰에서 ‘기’ 또는 ‘ㄱ’ 표기로 자주 사용되는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음가자 표기이다. 軀는 ‘수래의 굴대’라는 혼을 가지고 있다.

破麼只岳은 ‘파매기오름·바매기오름’, 夜漠岳·夜莫岳은 ‘바매기오름’, 上夜漠岳은 ‘웃바매기오름’, 下夜漠岳은 ‘알바매기오름’, 夜漠只는 ‘바매기’, 上夜漠只는 ‘웃바매기’, 下夜漠只는 ‘알바매기’의 표기이다.

1989년 제작된 제주도도로망도 등의 각종 지도와 『오름나그네3』[김종철(1995),p.237]에 ‘알밤오름, 웃밤오름’으로 표기하고, 오름이 밤알 모양으로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실제 ‘밤(栗)’과 관련이 없는 민간어원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기’는 제주도 지명 여러 곳에 나타나는 지명접미사<sup>10)</sup>로, 주로 산이나 언덕·등성이를 이루는 지역에 붙는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비석 등에 ‘栗岳[바매기오름], 下栗岳[알바매기오름]’ 등으로 잘못 표기하면서 ‘밤(栗)’과 관련된 오름인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 (3) 저리별이오름·저벼리오름

‘저리별이오름·저벼리오름’은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바닷가에 있는 오름을 일컫는다. ‘솔오름’[松岳山]의 옛이름이라고 하나, ‘솔오름’ 인근에 있는 조그만 오름을 지칭하는 것일 뿐, 바로 ‘솔오름’을 일컫는 것은 아닌 듯하다.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대정현)에 ‘貯里別伊[저리별이]’,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 산천)에 “松岳山:在縣南十五里 俗名貯別利 山之東西南濱海石壁環列 山嶺有池徑可百餘步(‘솔오름’은 대정현 남쪽 15리에 있다. 속된 이름은 ‘저별이’이다. 산의 동·서·남은 바다에 잇닿아 있고 돌벽으로 둘러 있다. 산꼭대기에는 못이

10) 제주시 용강동 ‘마매기’, 회천동 ‘마매기왓’, 월평동 ‘마매기동산’, 노형동 ‘마매기’, 조천읍 대흘리의 ‘마매기’, 남원읍 위미리 ‘마매기’ 등이 그것이다.

있는데, 지름이 백여 보나 된다.)”, 『탐라지』(대정현, 산천)에 “松岳·俗名佇別里 在縣南十五里(‘솔오름’의 속된 이름은 ‘저별리’이다. 대정현 남쪽 15리에 있다.)”, 『탐라순력도』(한라장축) 등에 ‘松岳[솔오름], 貯星[저별이]’, 『제주읍지』(대정현, 산천)에 “松岳·南距十五里 俗名貯別伊(‘솔오름’은 대정현 남쪽 15리의 거리에 있다. 속명은 ‘저별이’이다.)”, 『제주대정정의읍지』(대정현)에 “松岳·在縣南十五里 一名貯別岳(‘솔오름’은 대정현 남쪽 15리에 있다. 일명 ‘저별이오름’이다.)”, 『제주삼읍전도』 등에 ‘貯別[저별이]’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貯리는 ‘더리>저리’의 음가자 표기, 貯·佇는 ‘貯里(더리>저리)’의 ‘리(리)’가 탈락한 음가자 표기, 別은 ‘별’의 음가자 표기, 星은 ‘별’의 훈가자 표기, 利·리는 명사형성접사 ‘-이’에 앞 음절 ‘ㄹ’이 연음된 ‘리’의 음가자 표기, 伊는 명사형성접사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貯 녀적 더<신합, 하:43>, 佇 우두커니 저<동아 한한대사전>  
 별 爲星<훈민-원, 해례:26>

貯里別伊는 ‘더리별이>저리벼리’의 음가자 표기, 貯別利·佇別里·貯別伊는 ‘더별이>저별이·저벼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貯星·貯別도 ‘저별이’의 표기이다. ‘저별이·저벼리’는 ‘절(물결)’이 운다는 뜻의 ‘절울이[박용후(1992),p.54;김종철(1995),p.214]’의 변음이라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더별이>저별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좀더 논의해야 할 어휘이다.

#### (4) 도도리오름·도두리오름

‘도도리오름·도두리오름’은 제주시 도두마을에 있는, 표고 65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제주목)에 ‘道道里山[도도리메]’,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 “道道里岳·在州西十三里(‘도도리오름’은 제주 서쪽 13리에 있다.)”, 『탐라지』(제주목, 산천) 등에 “道圓岳·在州西十五里(‘도두리오름’은 제주 서쪽 15리에 있다.)”, 『탐라순력도』에 ‘道道望[도도망], 道道補[도도개]’, 『탐라지도』에 ‘道頭望[도두망], 道頭補[도두개]’,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道道峰[도도오름]’, 『전라남북도 여지도』(제주)에 ‘道員[도두리]’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도두봉’을 ‘도돌오름, 도들오름’이라고 한다.

‘도두(道頭)’는 예전에 ‘鳥頭[섬머리]’라고 했다는 데서 ‘섬의 머리’ 마을이라는 뜻[김봉현(1988),p.130], ‘한길의 머리’라는 뜻[박용후(1992),p.159], ‘도+돌[石]’ 혹은 ‘돌은(숫아난)’의 뜻[배우리(1994),2권 p.287]에서 붙여졌다고 하나, 모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도두(道頭)’의 명칭은 한자 표기 ‘道道里·道道·道頭, 道圓·道員’ 등으로 표기하고, 민간에서 ‘도돌·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동사어간 또는 동사어간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형태이다. 곧 중세국어의 ‘도드록하다[峰]’ 또는 ‘도돌-[循]’ 정도에 대응하는 뜻이다.<sup>11)</sup> 또 하나는 ‘도 + 도리(두리)’로 분석할 수 있다. ‘도리(두리)’는 ‘돌리(돌레)’라고도 하는데, ‘둥글다[圓]’의 뜻이다. 한자 표기에서 음가자로 ‘-道理·頭里(-도리·두리)’, 훈독자로 ‘-圓·員[-도리·두리]’로 표기한 것이다. 제주도방언의 ‘도리방석·돌레방석, 돌레떡, 도레물[廻水]’과 ‘돌레박’의 ‘도리·돌레·도레·돌레’가 중세국어 ‘두리(圓 두리 윈<천자-광 35>), 들에[厘, 輪], 두레(釐), 돌애>도래[圓]’ 등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주도방언에도 ‘도도록하게 내밀거나 드러나다’의 뜻인 ‘도도록하다’가 쓰인다. 김종철(1995:54)은 ‘도들오름은 도도록이 도드라진 모습’에서 붙여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道道里(도도리)의 里가 ‘리’ 표기를 반영한 것이라면 ‘도돌’ 정도의 음상을 반영한 것이고, 里가 ‘리’를 반영한 것이라면 ‘도도리’의 음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리’ 표기는 주로 ‘乙’로 나타나는 것<sup>12)</sup>으로 볼 때, 里가 ‘리’ 표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道道里는 ‘도(?) + 도리[圓]’의 구성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한자 표기 ‘道道里’는 ‘도도리’의 음가자 표기, ‘道道’는 ‘리(리)’가 탈락한 것, 道頭는 ‘道道’의 변음을 반영한 표기, 道圓·道員의 道는 ‘도’의 음가자, 圓과 員

11) 사롬 돈너 시넛 흙이 모다 도드록호 짖 흙을 프러(取千步峯泥 사롬 돈너 시넛 흙이 모다 도드록호 짖 흙)(구간 3:55)

漢陰에 槎頭는 머리 도드러리로다(漢陰槎頭遠循逃)(두해-초 16:62)

12) 제주도 아라2동의 옛이름이 ‘걸머리’인데, 『耽羅地圖』(1709)에 ‘驛馬路村(걸마로마울)’, 『濟州三邑都摠地圖』(1770년경)에 ‘驛馬路村(걸마로마울)’ 등으로 표기하였다.

은 '도리·두리[圓]'의 혼독자 표기이다<sup>13)</sup>.

현재는 한자 표기 道頭로 통일되었다.

(5) 물жат오름>물жат오름

'물жат오름>물жат오름'은 지금 조천읍 교래리와 남원읍 수망리에 걸쳐져 있는 '검은오름(표고 718미터)'의 본래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산천)에 “水城岳:在縣北三十二里 山嶺聚石如城 中有大池(‘물жат오름’은 정의현 북쪽 32리에 있다. 산꼭대기에 모아놓은 돌이 ‘жат(城)’과 같고, 가운데에 큰 못이 있다.)”, 『탐라지』(제주목, 산천)에 “水盈岳:在縣北三十里 其嶺有池(‘물жат오름’은 정의현 북쪽 30리에 있다. 꼭대기에 못이 있다.)”, 『탐라순력도』(산장구마)에 ‘勿左叱岳[물жат오름]’, 『제주읍지』(정의읍지, 산천)에 ‘水城岳[물жат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水는 ‘물>물’의 혼독자 표기, 勿은 ‘물>물’의 음가자 표기, 城은 ‘жат’의 혼독자 표기, 盈은 ‘츠>차’에 사잇소리가 붙은 ‘츛>차’의 혼가자 표기, ‘左叱’은 ‘жат’의 유사음 ‘차’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물 爲水<훈민-원, 해례:25>, 城 жат 성 俗稱城子<훈몽-초, 중:5>, 盈 출 명  
<유합-송광사본>

水城岳·水盈岳·勿左叱岳 등은 모두 ‘물жат오름’ 또는 ‘물차오름’의 표기이다. ‘물жат오름’은 음운의 격음화에 의해 ‘물차오름’으로 발음된다. 勿左叱岳은 ‘물жат오름’의 변음 ‘물차오름’의 표기이다. ‘물жат오름’ 또는 ‘물차오름’은 옛 기록과 같이 돌이 жат[城]과 같이 쌓여 있다는 데서 붙인 이름일 수도 있고, 오름 정상에 물이 차 있다는 데서 붙인 이름일 수도 있다.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물жат오름’은 잊혀지고 있다. 각종 지도나 조사된 지명 표기를 보면, ‘검은오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잊혀진 오름 이름인 ‘물жат오름’을 되살려 써야 할 것이다.

13) ‘도리·두리’는 ‘둥글다(圓)’는 뜻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海’의 뜻을 가진 고유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송하진은 (1993:97)에서 『삼국사기』(지리지)의 지명을 탐색하는 가운데 海를 뜻하는 고유어 ‘뚝뚝, 도리·두리’를 수습한 일이 있다.

(6) 굴메

‘굴메’는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에 있는, 표고 334.5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서귀포시와의 경계에 있다.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대정현, 봉수)에 “仇山:東准居玉岳(‘굴메’는 동쪽 ‘거옥오름’에 웅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 산천)에 “屈山:在縣東二十五里 有九十九洞(‘굴메’는 대정현 동쪽 25리에 있다. 99골이 있다.)<sup>14)</sup>”,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 봉수)에 “堀山烽燧:在縣東二十五里 應居玉岳(‘굴메’봉수는 대정현 동쪽 25리에 있다. ‘거옥오름’에 웅한다.)”, 이원진의 『탐라지』(대정현, 산천)에 “蠟山:在縣東二十五里(‘굴메’는 대정현 동쪽 25리에 있다.)”, 『탐라순력도』(한라장축)와 『탐라지도』 등을 비롯한 여러 古地圖에 ‘軍山[군메]’, 『해동지도』(『제주삼현도』)와 『호남전도』 등에 ‘軍山岳[군메오름]’, 『조선강역총도』에 ‘屈山[굴메]’, 『남한박물』에 ‘蠟岳[굴오름]’, 『대동여지도』(『제주도』)에 ‘蠟山[굴메]’, 『해동제국지도』 등에 ‘豪山[굴메]’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仇는 ‘굴’에서 ‘리’이 탈락한 ‘구’의 음가자 표기, 屈·堀은 ‘굴’의 음가자 표기, 蠟는 ‘굴’의 훈가자 표기, 豪는 蠟의 잘못된 표기, 山은 ‘미’의 제주도방언 ‘메’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의 표기이다.

仇 원슈 구<훈몽-초, 하:11>, 屈 구필 굴<신합-나손본>, 堀 굴 굴<동아 한한대사전>  
蠟 石花 蠟 礪黃 굴 牡蠟 蠟房 굴 겁질<물보, 개충>, 蠟蛤 굴 牡蛤 海上人說 牡蠟  
不能自生 每夏月有黃蝶群飛水上遺精 落水着物成蠟 故有牡之稱 古賁, 蠟 舍<물명 2:7>  
외 爲山<훈민-원, 해례:25>

仇山·屈山·堀山·蠟山 등은 모두 ‘굴메’의 표기이다. ‘굴메’의 ‘굴’은 ‘굴(窟)’ 또는 ‘굴[蠟·蠟]’의 뜻이 아니라 ‘골[谷·洞]<sup>15)</sup>’의 변음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99골이 있다.”는 기록이 그 증거이다. 실제로 동쪽에 있는 ‘굴메’와 서쪽에 있는 ‘돌라미’ 사이에 골짜기를 이루고, ‘굴메’ 서북쪽으로 유명한 ‘안덕계곡’이 있는데, ‘굴’은 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지명에서는 ‘골[谷]’과 ‘굴

14) 임제의 『南溟小乘』에도 “而別過屈山有九十九洞”이라는 기록이 있다.

15) 谷 골 곡 又作峪 俗<훈몽-초, 상:2>, 洞 골 동<백련 21>, 洞 골 동<유합-나손본>

[谷]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sup>16)</sup>. '蠟岳'은 '蠟山岳'에서 山이 탈락된 표기이다. 지금도 현지인들은 '굴메오름'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원래 이름이 '굴메오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軍山은 '군메'의 한자 표기이다. 이는 '굴메(오름)'의 'ㄹ'과 'ㅍ'이 음운동화에 의한 순음화로 '군피·군메'가 된 것이다. 현지인들이 '군메오름'이라고 하는 것도 '굴메오름'이 변한 것이다. 軍山岳은 軍山에 岳이 덧붙은 것이다.

이 산을 '굴른메[김종철(1994), 2권 p.87]'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잘못된 해석으로 보인다.

### (7) 것구리오름·것고리오름

'것구리오름·것고리오름'은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표고 428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불우)에 '巨口里岳[것구리오름]<sup>17)</sup>', 『탐라지』(제주목, 산천)와 『제주군읍지』(산천)에 “倒轉岳:在州東南三十里('것구리오름'은 제주 동남 30리에 있다.)”, 『제주읍지』와 『제주대정정의읍지』(제주읍지)에 “倒顛岳:東南距三十里('것구리오름'은 제주 동남 30리에 있다.)”, 『제주삼읍전도』 등에 '倒顛岳[것구리오름]',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鶯岳[것구리오름]' 등으로 표기되었고, 주변의 비석에는 '鶯岳, 鶯峰' 또는 '普門岳·寶文岳·保門岳[보문오름]' 등으로 기록되었다.

巨口리는 '것구리'의 음가자 표기, 巨는 '것'의 말음 'ㅅ'이 탈락한 표기, 倒는 '갓굴->가물-갓굴-갓골-(倒 가물 도<백련22>, 갓골 도<백련81>, 갓골 도<신합, 하:16>)'의 혼독자 표기, 轉은 '그울->구울-(轉 그울 전<유합-송광사본>, 구울 던<신합, 하:37>)'의 혼독자 표기, 顛은 轉의 뜻으로 잘못 표기된 훈가자 표기(顛 업더덜 던<신합, 하:17>), 鶯은 '거구리·것고리'의 훈가자 표기이다. 鶯의 중세국어의 훈은 '굿고리<sup>18)</sup>'이다. 岳과 峰은 '오름>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16) 성산읍 수산리의 속칭 '소생이굴'이라는 지명은 孝生伊谷·所松伊窟·孝生窟·孝生伊窟 등의 한자 표기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예이다.

17) 普門寺 : 在巨口里岳北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佛宇)

18) 鶯 굿고리 잉<백련 7>, 鶯 굿고리 잉 亦作鶯 俗呼黃鶯黃鳥<훈몽-초, 상:9>

紫鳳 | 업더디며 갓고로디어 더른 오새 누비엿도다(紫鳳顛倒在短褐)  
 <두해-중, 1:6>  
 뫓 그림재 뜨레 것구리더시니 고기 뫓부리에서 봄놀오(山影倒 江魚躍岫)  
 <백련-동경4>

곧 巨口里岳·倒轉岳·倒顛岳·鶯岳·鶯峰 등은 모두 '것구리오름'의 표기이다. 이는 중세국어의 동사 '갓굴->갓골-갓굴-'의 명사형으로 보인다. 곧 산이 거꾸로 엮어져 있는 형상이라는 뜻이다. 倒顛岳도 산꼭대기가 엮어져 있다는 뜻의 '것구리오름'의 표기이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자들은 鶯岳·鶯峰의 표기를 중시하여 '피꼬리오름[김종철(1995), 3권 p.183-187]'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오름 주변의 碑石 등에서 普門岳(보문오름)이라고 표기한 것도 있는데, 이는 이곳에 '普門寺'라는 절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寶文·保門(보문) 등은 普門(보문)의 다른 음가자 표기임을 알 수 있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제주도도로망도 등의 현대 지도에도 '피꼬리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8) 오름삿기오름>오름새끼오름 독자봉

'오름삿기오름'은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리에 있는, 표고 159.3미터의 '독자봉(獨子峰)'의 옛 이름이다.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정의현)에 '岳沙只[오름삿기]',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봉수)에 "吾音沙只岳烽燧:在縣東十里 應餘乙溫('오름삿기오름'은 정의현 동쪽 10리에 있다. '열온'에 응한다.)", 『탐라지』(정의현, 봉수)에 "獨子(峰):東應小水山 西應南山('독자봉'은 동쪽으로 '小水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南山에 응한다.)", 『탐라순력도』와 『탐라지도』 등에 '獨子(峰)', 『대동여지도』 등에 '猪子岳[독조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吾音은 '오름>오름'의 음가자, 沙只는 '삿기>새끼'의 음가자 표기로, 只는 '기'의 표기에 쓰이며, '삿'의 발음 'ㅅ'은 표기에 반

鶯 鶯 뫓고리 잉<신합, 上:11나>

영되지 않았다.

猊 샷기 예 獅之子... 麕 샷기 미 鹿之子... 羔 샷기 고... 豺 샷기 흰  
 <훈몽-초,상:10>

岳沙只는 '오름샷기>오름새끼'의 표기, 桴音沙只岳은 '오름샷기오름>오름새끼오름'의 표기이다.

이 오름은 17세기 말부터 獨子峰[독즈오름], 獨子岳[독즈오름]으로 표기되어, 오늘날은 獨子峰으로 굳어졌다.

#### (9) 지글메>지숫메>지글오름

'지글메>지숫메'는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표고 165.3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정의현) “水山:北准只末山 又准濟州笠山(‘물미’는 북쪽의 ‘지숫메’에 응한다. 또한 제주의 ‘갓메’에 응한다.)19)”,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전라도, 정의현, 산천)에 “只末山:在縣東三十五里(‘지숫메’는 정의현 동쪽 35리에 있다.)20)”, 『조선강역총도』 등에 ‘只末山[지숫메]’, 『탐라록』(정의현, 산천)에 “指尾山:在縣東三十五里(‘지숫메’는 정의현 동쪽 35리에 있다.)”, 『제주읍지』(정의현, 산천)에 “地尾山:東距三十五里(‘지숫메’는 동쪽 35리의 거리에 있다.)”, 『정의군지도』 등에 ‘地尾山[지숫메]’, 『정의군읍지』(『정의지도』)에 ‘末山[숫메]’ 등으로 표기되었다.

『세종실록』(권151)과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의 ‘정의현, 산천’ 조에 ‘只末山’으로, ‘제주목, 봉수’ 조에 ‘只末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세종실록』(권151) ‘제주목, 산천’ 조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정의현, 산천’ 조의 기록이 잘

19) 『世宗實錄』(권151,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에서는 “西山 : 東准笠山 又東准旌義縣只末山(‘갓메’는 동쪽의 ‘갓메’에 응한다. 또는 동쪽의 정의현 ‘지미메’에 응한다.)”와 같이 ‘只末山’으로 표기되었다. 이후의 지도 등에는 ‘只末, 指尾, 地尾’ 등으로 표기되었다.

20)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全羅道, 濟州牧, 烽燧)에서는 “笠山岳烽燧:西應元堂岳 東應旌義只末山(‘갓메오름’烽燧는 서쪽으로 ‘원당오름’에 응하고, 동쪽으로 정의 ‘지미메’에 응한다.)”라고 하여, ‘只末山’이라 표기하였다.

못된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끝’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면 ‘只末山[지숫메]’이 맞는 표기이고, 그렇지 않다면 ‘只末山’이 맞는 표기이다. 전자가 맞는 표기로 보인다.

‘지’의 표기로 只·指·地 등이 쓰인 것으로 보아, 이는 ‘땅(地)’의 뜻을 갖는 혼독자라고 하기 어렵다. 모두 음가자 ‘지’의 표기로 볼 수 있다. 末과 尾는 ‘글(未은 그티라<석보 9:2>, 尾 꼬리 미<백련 76>)>숫(末 숫<동해, 하:55>)>끝’의 혼독자 표기이다.

결국 只末山·指尾山·地尾山, 指尾峰·地尾峰 등은 모두 ‘지글메·지숫메’ 또는 ‘지각메’ 정도의 표기로 볼 수 있다. 이를 ‘지미메, 지미오름’, 또는 ‘땅끝메, 땅끝오름’으로 읽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의 연구물들에서 ‘地尾’가 맞는 표기로 보고, ‘땅끝’의 혼독자 표기라 한 것은 모두 건강부회식 논의라 할 수 있다.<sup>21)</sup>

‘지글>지숫’은 고유어로 보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 (10) 말마말메

‘말미·말메’는 북제주군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표고 145.9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북제주군 구좌읍과의 경계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전라도, 정의현, 산천)에 “末山:在縣東二十七里(‘말미’는 정의현 동쪽 27리에 있다.)”, 『탐라지』(정의현, 산천)에 “斗山:在縣東二十七里(‘말미’는 정의현 27리에 있다.)”, 『탐라순력도』와 『탐라지도』 등에 ‘斗山[말미]’ 등으로 표기되었다.

末은 ‘말’의 음가자 표기, 斗는 ‘말(斗 말 두<백련 77>)’의 훈가자 표기, 山은 ‘외(제주도방언은 ‘메·미’)’의 혼독자 표기이다.

末山·斗山은 모두 ‘말메·말미’의 표기이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제주도도로망도 등의 현대지도에는 ‘斗山峰(두산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근래에 와서 ‘斗山’에 다시 ‘峰’이 덧붙은 것이다.

21) 김봉현(1988), 『濟州島의地名考』, 국서관행회, p.258.  
오성찬(1992), 『제주도속지명사전』, 민음사, p.70.  
김종철(1994), 『오름나그네 1』, 도서출판 높은오름, p.115.

‘말’의 뜻은 ‘말(馬)’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말’은 ‘말·말(概 말 꺾<훈몽-초, 중:9>, 概은 말히라<능엄 8:85>)과 관계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11) 바고니메·바구니오름

‘바고니메·바구니오름’은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표고 140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대정읍과의 경계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 산천)에 “把古山:在縣西五里 周五里(‘바고니메’는 대정현 서쪽 5리에 있다. 둘레는 5리이다.)”, 『탐라지』(대정현, 산천)에 “簾山:在縣南五里(‘바고니메’는 대정현 남쪽 5리에 있다.)”, 『조선강역총도』 등에 ‘把古岳’, 『팔도지도』(『호남방여도』) 등에 ‘文簾山[뽕바고니메]’, 『해동여지도』 등에 ‘文簾山[뽕바고니메]’, 『제주읍지』(정의현, 산천)에 “簾山:南距五里 下有石泉(‘바고니메’는 남쪽 5리의 거리에 있다.)”, 『탐라순력도』에 ‘破軍山[바구니메], 破軍山岳[바구니메오름]’ 등으로 기록되었다.

把古는 ‘과고→바고(니)·바곤이’의 음가자 표기, 破軍은 ‘과군→바곤이’의 음가자 표기, 簾은 ‘대바구니’를 뜻하는 ‘바고니·바곤이’의 훈독자 표기, 簾은 ‘삿자리·대자리’를 뜻하는 훈독자 표기, 山은 ‘외(제주도방언은 ‘메·미’)의 훈독자 표기, 文은 ‘뽕>민’의 표기이다.

簾 바고니 단<훈몽-초, 중:6>, 簾 산 덩<신증, 상:24>

把古山·簾山·簾山 등은 모두 ‘바고니메’의 표기이고, 破軍山은 ‘바곤이메·바구니메’의 표기이다. 破軍山岳은 破軍山[바구니메]에 岳[오름]이 덧붙은 것이다. 곧 지형이 ‘대바구니’와 유사하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文簾山과 文簾山 등은 ‘뽕바고니메’의 표기이다. ‘뽕>민’은 ‘禿’의 뜻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 ‘박쥐’의 형상이라는 데서 ‘바굼지오름’이라 했다고 하나, 이것은 건강부회식 해석으로 보인다.<sup>22)</sup>

22) 박용후(1992).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p.55.  
김종철(1994). 『오름나그네 2』. 도서출판 높은오름, p.128~129.

(12) 것글오름·것그리오름

‘것글오름·것그리오름’은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표고 254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 “皮文岳:在州西三十里(‘것그리오름’은 제주 서쪽 30리에 있다.), 『탐라순력도』 등의 각종 고지도에 ‘皮文岳[것그리오름]’으로 표기되어 있고, 비석 등에서 ‘狗尾岳[개꼬리오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皮는 ‘갓·갓>겉’ 또는 ‘갓·갓’의 음가자 표기, 文은 ‘글’의 훈가자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衣而 옷 것…皮衣料 것 아니 올린 옷<한청 11:6>

느릅나무 거츠로 더퍼 현 달 그리오더(以楡皮盖定掩於傷處)<구방, 하:73>

皮 갓 피 생口皮<훈몽-초, 하:5>, 皮 가죽 피<신합, 상:26>, 영의 갓 爲狐皮<훈민-원, 해례:18>

글 𣎵는 선비를 즐기나다(耽文儒)<두해-초, 8:22>, 文 글월 문<유합><신합>

皮文岳은 ‘것글오름’ 또는 ‘것그리오름’의 표기이다. 이 이름은 후대의 비석 등에서 ‘狗尾岳[개꼬리오름]’으로 잘못 표기되면서, 誤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까지도 ‘개(狗)와 관련지어, ‘개꼬리오름<sup>23)</sup>’ 또는 ‘개구리오름<sup>24)</sup>’, ‘갓거리오름<sup>25)</sup>’으로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狗尾’가 ‘곰’이 표기로, ‘곰계<sup>26)</sup>’라고도 하고, 皮文은 ‘산기슭’을 뜻하는 ‘갓골<sup>27)</sup>’이라고 하기도 하나, 모두 신빙성이 없다.

‘것글·갓글’ 또는 ‘것그리·갓그리’는 중세국어의 ‘갓그다[倒]’의 관형사형 ‘갓글’, 부사 ‘갓그리·갓그로·갓그로·갓그리>거꾸로(倒)’ 등에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이 오름은 현실적으로 몸은 하나인데, 상·하반신 형태로 형성돼 있으며, 구불구불 긴 등성마루 양단에 각각 반대 방향으로 벌어진 복합형 화구를 가졌다[김종철(1994), 3권 p.363].”의 설명에 부합되고, 제주도방언 ‘거꾸

23) 『翰林邑誌』(1963)

24) 국립지리원 제작의 제주도도로망도 등의 각종 지도

25) 오성찬(1992),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사, p.135.

26) 현평효(1990),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언어의 원류”, 『제주문화』 4호, p.35.

27) 김종철(1994), 『오름나그네 3』, 도서출판 높은오름, p.364.

로'의 변이형태인 '거골로·가골로'와도 음상이 비슷하다. 곧 형태가 거꾸로 된 오름이라는 데서 '것글오름·것그리오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例 가골 도<백련 22>, 갓글 도<백련 81>, 갓골 도<유합-송광사본>, 갓그리 도<유합-영장사본>

오직 갓그리 보물 브터=特依倒見하야<능엄 2:12>

無知로 知 사므니 이 갓그로 아로미라=以無知로 爲知하니 是 | 倒知也 | 라 <능엄 10:56>

### (13) 둘라미둘라미오름

'둘라미오름'은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표고 136미터·154미터·117.8미터의 세 봉우리로 이루어진 오름을 일컫는다. '둘라미오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름은 이 외에도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표고 201미터의 오름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표고 984미터의 오름,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표고 697미터의 오름 등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산천)에 “月羅山岳:在縣西五十里(‘둘라미오름’은 정의현 서쪽 50리에 있다.)”, 『탐라지』(정의현, 산천)에 “懸蘿山:在縣西五十里(‘둘라미’는 정의현 서쪽 50리에 있다.)”, 『탐라지도』과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月羅山[둘라미]’, 『제주읍지』(정의현지, 산천) 등에 ‘月羅岳[둘라미오름]’, 『대동여지도』 등에 ‘達羅山[둘라미]’, 『동여도』(서울대 규장각) 등에 ‘懸蘿山[둘라미]’, 주변의 묘 비석에 ‘月羅峰’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지인들은 ‘둘라미, 드라미’라고 부른다.

月은 ‘돌[돌 爲月<훈민-원, 해례:26>]’의 훈가자 표기,懸은 ‘돌[懸 돌 현<신합, 하:46>]’의 훈가자 표기, 達은 ‘달’의 음가자 표기, 羅와 蘿는 ‘라’의 음가자 표기, 山은 ‘외’의 제주도방언 ‘미·메’의 훈가자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돌’과 ‘라’가 결합하면서 발음상 ‘돌’의 ‘ㄹ’은 탈락되기도 한다.

月羅山岳은 ‘둘라미오름’의 표기, 月羅山은 岳을 생략한 ‘둘라미’의 표기, 懸蘿山·懸羅山은 岳을 생략한 ‘둘라미오름’의 표기, 月羅岳은 月羅山岳의 山을 생략한 표기, 月羅峰은 月羅岳의 岳을 峰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月羅山[돌라미]는 음운변화에 의해 ‘드라미’라고도 하는데, ‘드라미’는 ‘박쥐’를 달리 일컫는 중세국어이자 제주도방언이다. 『사성통해』(상, 36ㄴ)에 ‘鼯 似鼠 드라미 一曰飛生鼠 似蝙蝠 又五技鼠 螻蛄也’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飛生鼠(‘박쥐’의 판 이름)’를 ‘드라미’라고 한다고 하였다. 근대의 표기로 ‘드람이(鼯 드람이) <왜어, 하:23>’도 문헌에 보인다.

鼯 드라미 오 俗呼山鼠 又松鼠 鼯 드라미 심<훈몽-초, 상:10>

鼯 드람이 오<왜어, 하:23>, 松鼠 드람이<물보, 모충>

실제 오름의 형세가 박쥐[김종철(1994), 1권 p.251]가 날개를 편 형상과 같다 [제주어사전(1995), p.156].<sup>28)</sup> 머리에 해당하는 북쪽 가운데의 주봉이 154미터이고, 북서쪽으로 치우친 좌측 봉우리가 136미터, 남쪽으로 치우친 우측 봉우리가 117.8미터로, 꼭 박쥐가 날개를 펼쳐 먹이를 덮칠 듯한 형상이다.

‘돌라미>드라미’를 ‘높다’는 뜻의 고구려어 ‘달’ 또는 ‘다라’와 ‘산’의 뜻인 ‘미’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14) 매바위오름·매오름

‘매바위오름·매오름’은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에 있는, 표고 137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탐라지』(정의현, 산천)에 “鷹巖岳:在縣南二十里(‘매바위오름’은 정의현 남쪽 20리에 있다.)”, 『탐라지도』과 『해동지도』(『제주삼현도』)에 ‘鷹岩[매바위]’, 『고지도첩』(『탐라전도』)와 『조선강역총도』 등에 ‘鷹岩山[매바위매]’, 『제주읍지』(정의현, 산천)에 ‘鷹岳[매오름]’, 『제주대정정의읍지』(정의읍지, 산천)에 ‘鷹岩岳[매바위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현지인들은 주로 ‘매오름’이라고 한다.

鷹은 ‘매(鷹 매 응<훈몽-초, 상:8>)’의 훈독자 표기, 巖·岩은 ‘바회(巖 바회 암 俗稱巖頭 又曰石峪<훈몽-초, 상:2>)>바위’의 훈독자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鷹巖岳·鷹岩岳은 ‘매바위오름’, 鷹岩은 ‘매바위’, 鷹岳은 ‘매오름’의 표기이다.

28) 『제주어사전』(1995:156)에서는 ‘박쥐’의 뜻으로 ‘드람지’가 표제어로 올라 있다.

곧 오름 정상이 매[鷹]의 머리와 닮았다는 데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鷹岩山은 岳을 山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는 ‘매오름’으로 많이 알려졌다.

(15) 남짓은오름

‘남짓은오름’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표고 297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탐라순력도』에 ‘道內山[도너미], 道內山岳[도너미오름]’, 『탐라지도』과 『제주삼읍도총지도』, 『해동지도』(『제주삼현도』) 등에 ‘木密岳[남짓은오름]’, 『제주삼읍전도』 등에 ‘木啄岳[남짓은오름]’,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木啄岳[남짓은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현지인들은 주로 ‘도노미’, 또는 애월읍의 ‘도노미[서도노미]와 대비해서 ‘동도노미’라고도 부른다.

道內는 ‘도너’ 또는 유사음 ‘도노’의 음가자 표기, 山은 ‘되’의 제주도방언 ‘미·메’의 혼독자 표기이다. 道內山·道內山岳은 ‘도너미·도너미오름[도노미·도노미오름]’의 표기로, ‘남짓은오름’의 옛이름이다. ‘도너·도노’는 확실하지 않으나, 중세국어의 ‘돌애>도래>도리[圓]’의 유사음으로 보인다. 곧 ‘둥근 산’이란 뜻이다.

木은 ‘남·나모’의 제주도방언 ‘남·냥’의 혼독자 표기, 密은 ‘깃-’의 제주도방언 ‘짓-’의 혼독자 표기, 啄은 ‘좃-’의 혼독자 표기, 啄은 ‘좃-’의 혼독자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木 나모 목<백련 14>, 樹 나모 슈<백련 22>

늘근 남근 7장 서리롤 다내옛느니라(老樹飽經霜)<두해-초 7:10>

鬱鬱은 기순 양지오<남명, 하:35>

啄 좃 탁<동아 한한대사전>, 啄 덕조술 탁<신합, 상:13>

木密岳은 ‘남짓은오름’, 木啄岳·木啄岳은 ‘남짓은오름’의 표기이다. 이 오름은 옛날부터 ‘남[木]’이 우거져 있었다고도 하고, 새가 나무를 쪼으며 벌레를 잡아먹는 듯한 飛鳥啄木形의 명당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남짓은오름’·‘남짓은오름’이라 했다고 한다. 전자가 오래된 이름인지 후자가 오래된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전자가 앞선 기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표제어로 삼는다.

오늘날의 지도 등에 쓰인 ‘南朝峰·南鳥峰(남조봉)’·‘남조순오름’ 등은 ‘남짓은

오름'의 음가자 표기이거나 음운변이형이다.

(16)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살손장오리, 불탄데오름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살손장오리, 불탄데오름'은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남쪽에 있는 오름을 일컫는다. '물장오리'는 표고 930미터, '테역장오리'는 표고 840미터, '살손장오리'는 표고 916미터, '불탄데오름'은 표고 916미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 “長兀岳:在漢拏山腰 距州三十六里 岳頭有池(‘장오리오름’은 한라산 허리에 있다. 제주에서의 거리가 36리이다. 오름 머리에는 못이 있다.)”, 『탐라지』(제주목, 산천)에 “長兀岳:在州東南四十五里 凡四峰一峰最高大英嶺有龍池 徑可五十步 深不可測 人喧則雲霧四起 風雨暴作 旱則禱雨有驗 其邊積海蛤殼 俗傳海島啣置其鳴貢貢 謂之 貢鳥漢拏山池亦然”, 『남천록』에 “長兀岳:在州東南四十五里 有水長兀草長兀火長兀險長兀 凡四峯而水長兀最高大(‘장오리오름’은 제주 동남쪽 45리에 있다. ‘물장오리·새장오리·불장오리·험장오리’ 등 네 봉우리가 있으나, ‘물장오리’가 가장 높고 크다.)”, 『탐라순력도』(산장구마)에 “長兀里岳:有水(‘장오리오름’에는 물이 있다.), 沙孫長兀岳[살손장오리오름], 佛呑大岳[불탄데오름]”,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水長兀岳[물장오리오름], 沙孫長兀岳[살손장오리오름]’, 『제주삼읍전도』에 ‘水長兀[물장오리], 沙孫長兀[살손장오리], 火燒竹[불탄데]’,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水嶂兀[물장오리], 莎嶂兀[살손장오리]’ 등으로 표기되었다.

水는 ‘물>물’의 훈독자 표기, 草는 ‘때’의 제주도방언 ‘테역’의 훈독자 표기, 沙·莎는 ‘화살’을 뜻하는 ‘살’의 음가자 표기로, 말음 ‘ㄹ’이 생략된 표기, 孫은 ‘손’의 중세국어인 ‘손’의 음가자 표기, 長兀·長兀里·嶂兀 등은 ‘장울·장울리→장오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佛은 ‘불>불’의 음가자 표기, 火는 ‘불(火 불 화<훈몽-초, 하:15>>불’의 훈독자 표기, 呑은 ‘톤>탄’의 음가자 표기, 燒는 ‘트-<sup>29</sup>)의 관형사형 ‘톤’의 훈독자 표기, 大는 ‘대’의 유사음 ‘데·디’의 음가자 표기, 竹은 ‘대’의 유사음 ‘데’의 훈가자 표기, 岳은 ‘오름>오름’의 음가자 표기이다.

29) 값간도 툃디 아니하며=曾不焚燒하며<능엄 9:108>, 불에 ㅄ 죽은 거시라(火燒死)<중무원 3:42>

‘장울·장오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장울·장오리’가 ‘둘러서 있는 오름[김종철(1994), 3권 p.63], ‘울·오리’가 ‘비탈·고지(高地)[배우리(1994), p.215]’의 뜻이라 하는 연구가 있다. 만약 ‘울·오리’가 ‘오름[岳]’의 뜻을 갖고 있고, ‘살쨍장오리’에서 ‘쨍’ 뒤에 나타는 것으로 보아, ‘장(長)’도 명사성의 어휘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물-장울’, ‘테역-장울’, ‘살쨍-장울’ 등의 語構成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장울·장오리’는 복합명사 또는 단일한 명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쉽게 구명할 수 없는 어휘이다.

### (17) 산굼부리오름

‘산굼부리오름’은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437.4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이 오름에는 오름 정상에서 약 120미터 땅 속으로 들어간 ‘굼부리(표고 305.4미터)’가 있다.

『탐라순력도』(산장구마)에 ‘山仇音夫里岳[산굼부리오름]’,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삼읍전도』에 ‘山九音浮里[산굼부리]’,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山窟[산굼부리]’ 등으로 표기되었다. 주변의 묘 비석에는 ‘山穴[산굼부리], 山凹[산굼부리]’ 등으로 표기되었다.

山은 ‘산’의 음독자 표기, 仇音·九音은 ‘굼’의 음가자 표기, 夫里·浮里는 ‘부리’의 음가자 표기, 窟은 ‘굼·굼부리’의 훈독자 표기이다. ‘굼부리’는 ‘굼’과 ‘부리’로 분석할 수 있다. ‘굼’은 중세국어의 ‘굼·구무(穴·窟·屍)’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부리’는 ‘뒹부리’의 뜻이다. ‘굼부리’는 ‘산 정상에 있는, 우묵하게 팬 곳’을 뜻하는 고유어이다.

窟은 굼기라<월석, 월인석보 서:21>

孔 구무 공 又姓 穴 구무 혈 窟 구무 굴<훈몽-초, 하:8>

山 뒹 산 嶽 뒹부리 약 亦作岳 … 岫 뒹부리 슈 山有穴曰岫<훈몽-초, 상:2>

山仇音夫里岳은 ‘산굼부리오름’, 山九音浮里·山窟은 ‘산굼부리’의 표기이다. 山穴·山凹도 ‘산굼부리’의 한역 표기이다.

### (18) 줄퓌오름>자배오름

‘줄퓌오름’은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표고 211.3미터의 오름을 일

컨는다. 오늘날 ‘자배오름’으로 알려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산천)에 “蒲岳:在縣西四十里 周三十里(‘줄피오름’은 정의현 서쪽 40리에 있고, 둘레가 30리이다.)”, 『조선강역총도』 등에 ‘蒲岳’, 『호남전도』 등에 ‘索浦’, 『탐라지』(정의현, 산천)와 『탐라순력도』, 『제주대정정의읍지』(정의읍지)에 “紫蒲岳:在縣西四十里(‘즈포오름’은 정의현 서쪽 40리에 있다.)”, 『탐라방영총람』에 ‘紫盃峰[즈비오름]’, 『제주삼읍도총지도』에 ‘紫蒲峰[즈포오름]’, 『팔도지도』(‘호남방려도’) 등에 ‘自盃[즈비]’, 『제주읍지』(정의현, 산천)에 “資盃岳:西距四十里(‘즈비오름’은 정의현 서쪽 40리에 있다.)”, 『제주삼읍전도』에 ‘子盃峰[즈비오름]’, 『대동여지도』 등에 ‘自盃岳[즈비오름]’, 『정의읍지』(‘정의지도’)에 “資盃峰[즈비오름]”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변의 묘 비석 등에는 ‘自盃峰·資盃峰·雌輩峰’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蒲는 ‘부들·창포>창포·줄피>잘포’의 혼독자 표기이다. 여기서 蒲는 후대의 ‘紫蒲’의 표기로 보아 ‘줄피>잘포’의 혼독자 표기로 보인다. 紫蒲는 ‘줄피>잘포’에서 ‘리’이 탈락한 ‘즈포’의 음가자 표기이다. 紫는 ‘줄’에서 ‘리’이 탈락한 ‘즈’(불글 ㅈ<백련18>)의 음가자 표기, 子와 資·自도 ‘즈(子 아들 ㅈ<신합, 상:10>, 資 ㅈ글 ㅈ<신합, 하:28>, 自 스스로 ㅈ<백련 13>)’의 음가자 표기, 紫蒲의 蒲는 ‘피>포’의 음가자 표기이다. 盃는 ‘피’의 변음 ‘비>배·베’의 음가자 표기이다. 資盃·子盃·自盃 등은 ‘줄피·잘포’의 변이음 ‘즈비·즈베’의 음가자 표기이다. ‘資輩, 雌輩’ 등은 ‘즈비·즈베’를 달리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蒲 창포 ㅍ <훈몽-초, 상:4>, 蒲 창포 ㅍ, 부들 ㅍ <신합, 상:7>  
 현 부들 지죽 한 우후물 ㅈ느리 사하라(敗蒲席一握細剉) <구방, 상:34>  
 몹궤 줄피는 짜홀 조차 잇고(渚蒲隨地有) <두해-초 10:4>,  
 프른 줄피 돛기서 주금 니부물 돌히 너규니(靑蒲甘受戮) <두해-초 20:18>,  
 夫王 生海邊 似莞似蘭 采以爲席 此疑 잘포 及 줄 之類 未詳 ㅈ ㅈ <물명 3:7>

이제까지 ‘줄피오름>즈배오름’의 ‘즈배·즈베’의 뜻을 ‘즈배→자배(즈배낭)’의 뜻(김종철(1995), 1권 p.83)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蒲岳, 紫蒲岳의 표기를 ‘즈배(남·남)’과 관련시킬 수 없다고 본다.

(19) 모슬개오름

‘모슬개오름’은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표고 180.5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에 ‘毛瑟浦岳[모슬개오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 산천)에 “毛瑟岳:在縣西南六里(‘모슬오름’은 대정현 서남쪽 6리에 있다.)”, 『탐라지』(대정현, 산천)와 『제주읍지』(대정현지, 산천)에 “慕瑟岳:在縣西南五里(‘모슬오름’은 대정현 서남쪽 5리에 있다.)”, 『탐라순력도』에 ‘慕瑟·毛瑟[모슬]’,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삼읍전도』, 『대정군읍지』 등에 ‘慕瑟岳·慕瑟峰[모슬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慕瑟·毛瑟은 모두 ‘모슬’의 음가자 표기이다. ‘모슬’은 ‘모래[沙]’를 뜻하는 제주도방언 ‘모살’의 변이음이다. 곧 ‘모래’가 많은 지역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모슬개’ 근처에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毛瑟浦岳·慕瑟浦岳[모슬개오름]’이라 하였고, 여기서 蒲를 생략한 표기가 ‘毛瑟岳·慕瑟岳·慕瑟峰[모슬오름]’이다. ‘모래’의 중세국어형이 ‘몰애(>모라·몰래·모리>모래)’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의 제주도 방언형 ‘모슬·모살’은 일찍부터 특이하게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20) 드랑쉬오름·다랑쉬오름

‘드랑쉬오름·다랑쉬오름’은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표고 382.4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 “多郎時岳:在州東六十五里(‘드랑쉬오름’은 제주 동쪽 65리에 있다.)”, 『탐라지』(제주목, 산천)에 “大朗秀岳:在州東八十里(‘다랑쉬오름’은 제주 동쪽 80리에 있다.)”, 『동여도』에 ‘大郎秀岳[다랑쉬오름]’, 『해동제국지도』 등에 ‘大朗秀岳[다랑쉬오름]’,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多浪秀岳[다랑쉬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주변에 있는 비석 등에 ‘月朗秀岳[드랑쉬오름]’, 月朗岫[드랑쉬], 月郎峰[드랑쉬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多郎·大郎·多浪·月郎 등은 모두 ‘드랑·다랑’의 음가자 표기이다. ‘드랑·다랑’을 ‘높다(山·高)’는 뜻의 고구려어 ‘달’과 관계가 있는 것[김인호; 현평효(1990), p.40;

김종철(1995, 1권 p.37-38]으로 보기도 하나 확실하지 않다. 時와 秀, 岫 등은 ‘송(戴)’를 뜻하는 제주도방언 ‘쉬’의 음가자 표기이다.

‘아끈드랑쉬(小月郎秀)·아진드랑쉬(坐多浪秀)’(표고 198미터)가 이웃해 있다.

多郎時岳·大朗秀岳·多浪秀岳·月朗秀岳 등은 모두 ‘드랑쉬오름·다랑쉬오름’의 표기이다.

### (21) 널개오름

‘널개오름’은 북제주군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표고 93.2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에 ‘板浦岳·板浦山(널개오름·널개메)’,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 “板乙浦岳:在州西八十里(‘널개오름’은 제주 서쪽 80리에 있다.)”, 『탐라지』(제주목, 산천)과 『탐라순력도』, 『제주읍지』에 ‘板浦岳’ [널개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板은 ‘널’의 혼독자 표기이다. 板乙도 ‘널’의 표기로, 혼독자 板과 음가자 乙이 결합한 표기이다. 乙은 ‘널’의 말음 ‘ㄹ’ 표기이다.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널 爲板<훈민-원,해례:25>, 板 널 판<훈몽-초, 중:8>

板乙浦岳·板浦岳은 ‘널개오름’의 표기이다. ‘널개’ 가까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널개오름’은 널[板]과 같은 개[浦] 가까이 있는 오름, 또는 넓은 개[浦] 가까이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 (22) 새별오름·새빌오름

‘새별오름·새빌오름’은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표고 519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최세진이 편찬한 『이문』(崔瑩 等牒)에 ‘曉星呑音[새별오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 “曉別岳:在州西南五十九里(‘새별오름’은 제주 서남쪽 59리에 있다.)”, 『탐라지』(제주목, 산천)에 “曉星岳:在州西南五十里(‘새별오름’은 제주 서남쪽 50리에 있다.)”, 『제주군읍지』(「제주지도」)와 비석 등에 ‘新星岳·晨星岳·鳥飛岳[새빌오름]’ 등으로 표기되었다.

曉와 晨의 중세국어 훈은 '새배[曉 새배 효...晨 새배 신<신합, 상:3>]'이다. 곧 曉와 晨은 훈 '새배'의 어두음 '새'의 혼독자 표기이다. 新은 '새[新은 새라 <세훈민 2>]'의 훈가자 표기, 鳥는 '새'의 훈가자 표기, 星은 '별'의 제주도방언 '빌·벨'의 혼독자 표기, 別은 '별'의 유사음 '빌·벨'의 음가자 표기, 飛는 '빌'의 표기로, 'ㄹ'이 탈락한 '비'의 음가자 표기, 岳은 '오름'의 혼독자 표기이다.

曉星吾音·曉別岳·曉星岳·新星岳·晨星岳·鳥飛岳은 '새벨오름·새빌오름'의 표기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새벨오름·새빌오름'이 '새별'에 비유된 이름[김종철(1995), 2권 p.238]이라는 데에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 (23) 검을데기오름·감은데기오름

'검을데기오름·감은데기오름'은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에 있는, 표고 402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 “今勿德岳:在州西南三十九里(검을데기오름'은 제주 서쪽 39리에 있다.)”, 『耽羅志』(제주목, 산천)에 “感恩德岳:在州西南三十四里(감은데기오름'은 제주 서쪽 34리에 있다.)”, 『탐라순력도』에 '可文岳[감은오름]·今勿德岳[검을데기오름]', 『탐라지도』과 『제주삼현도』에 '感恩岳[감은오름]·今勿德[검을데기]',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삼읍전도』에 '黑德岳[감은데기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今勿은 '거믄[黑은 거믄 씨오<월석 1:22>]' 또는 '가믄[玄 가믄 현<훈몽-초, 중:14>]의 음가자 표기이다<sup>30)</sup>. 勿의 중국 상고음과 중고음이 kjəm이다. 德은 '돌 언덕'의 뜻인 제주도방언 '덕·데기'의 음가자 표기, 感恩은 '감은'의 제주도방언인 '감은'의 음가자 표기, 可文은 '감은'의 연철표기인 '가문'의 음가자 표기, 黑은 '감은'의 혼독자 표기이다.

今勿德岳은 '거믄데기오름'의 표기, 感恩德岳·黑德岳은 '감은데기오름'의 표기, 感恩岳·可文岳[감은오름]은 感恩德岳·可文德岳의 德을 뺀 표기이다. 이 오

30) 今勿이 黑과 대비되는 표기는 『삼국사기』(지리지)에도 여러 개가 확인된다.

黑壤郡 一云 黃壤郡 本高句麗 今勿奴郡 景德王改名 今鐵州(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今勿奴郡'은 '黑壤郡'과의 대비에서 '今勿'과 '黑', '奴'와 '壤'의 대응이 성립된다. 今勿은 黑을 뜻하는 단어로, 중세어 '거믄'과 일치한다.

름이 겹게 보인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가끔 神聖의 뜻을 가진 ‘감·곰’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지나친 천착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에 마을 이름의 한자 표기가 ‘今德’으로 굳어졌다. 주변의 묘 비석에도 ‘今德岳(峰)’ 등의 표기가 보인다.

#### (24) 넙케오름

‘넙케오름’은 남제주군 대정읍 서광리에 있는, 표고 246.5미터의 오름을 일컫는다.

『탐라순력도』에 ‘仍邑居[넙케오름]’, 『탐라지도』과 『해동지도』(『제주삼현도』)에 ‘廣居岳[넙케오름]’, 『제주삼읍전도』에 ‘廣巨岳[넙케오름]’, 『대정군지도』에 ‘廣巨里[넙케]’, 주변의 묘 비석에는 ‘廣蟹岳[넙케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仍邑은 ‘넙’의 음가자 표기이다. 仍의 중세 한국 한자음은 ‘잉’이지만, 중국 상고 한자음은 níng이고, 중국 중고 한자음은 níng이다. 仍이 지명의 차자 표기로 쓰일 때는 ‘너·느·내·니’ 등 聲母 ‘n’을 가진 음가자로 쓰인다.<sup>31)</sup> 邑은 ‘넙’의 말음 ‘ㅍ’의 표기이다. 廣은 ‘넙-[廣 너블 광<천자-광 20>]’의 혼독자 표기이다. 居·巨·巨리는 ‘케’의 음가자 표기이다. 巨리는 음가자 ‘巨[거]’와 음가

31) 槐壤郡 本高句麗 仍斤內郡 景德王改名 今槐州(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仍斤內郡’은 경덕왕 改名의 ‘槐壤郡’과의 대비에서 ‘仍斤’과 ‘槐’, ‘內’와 ‘壤’의 대응이 나타난다. 槐는 ‘누투 괴<유합-영장사본>, 누튀 괴<천자-광 21>’로 나타나므로, ‘누’ 정도의 음을 나타내는 훈가자이다. 仍斤은 ‘느느’ 정도의 음을 나타내는 음가자 표기이다. 신태현(1958:44)은 仍斤을 ‘느’으로 재구하였다.

穀壤縣 本高句麗 仍伐奴縣 景德王改名 今黔州(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仍伐奴縣’과 경덕왕 改名의 ‘穀壤縣’과의 대비에서 ‘仍伐’과 ‘穀’, ‘奴’와 ‘壤’의 대응이 나타난다. 穀은 ‘남 爲穀<훈민-원, 해례:22>, 남 곡<훈몽-예산문고본>’으로 나타나므로, ‘남’ 정도의 음을 나타내는 훈가자이다. 仍伐은 ‘넙’ 정도의 음을 나타내는 음가자 표기이다. 신태현(1958)은 仍伐을 ‘넙’, 최범훈(1985:62)은 ‘느별’로 재구하였다.

汝瀾縣 本百濟仍利阿縣 景德王改名 今和順縣(삼국사기)(권36, 잡지5, 지리3). 汝瀾縣과 경덕왕 改名의 仍利阿縣과의 대비에서 ‘汝’와 ‘仍’, ‘瀾’와 ‘利阿’의 대응이 나타난다. 汝의 훈이 ‘너’이므로, 仍도 ‘너·나’ 정도의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태현(1958:95)은 仍利를 ‘나리[海]’, 최범훈(1985:67)은 仍을 ‘너[汝]’로 재구하였다.

위와 같이 仍이 지명 표기에 쓰인 예는 『삼국사기』(지리지)에만도 여러 예가 나타난다. 위와 같이 경덕왕 改名 전의 지명과 改名 후의 지명을 대비하면, 仍의 표기는 韻部 母音(으·어·아)의 표기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聲母의 표기에 있어서는 ‘n(ㄴ)’의 표기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자 ‘里[리]’의 말모음 ‘ㅣ’가 결합하여 ‘케’를 표기한 것이다. ‘케’는 나무나 잡풀들이 있는 일정한 지대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蟹’는 ‘계’의 훈가자 표기로, ‘居·巨(케)’의 후대음 표기이다. ‘蟹’를 훈독자로 해독해서는 안된다.

仍邑居·廣居·廣巨·廣巨里 등은 모두 ‘넙케’의 표기이다. 곧 ‘넓은 케’라는 뜻이다. 여기에 ‘오름’의 뜻을 가진 ‘岳’이 덧붙어서 ‘넙케오름’이 된 것이다. 居·巨·巨里 등은 모두 ‘케’를 나타내는 한자가 없어서 평음을 가진 이들 한자를 차용한 것인데, 이것이 19세기 경에 廣蟹岳으로 한역되면서, ‘넙케오름’이라 하고 ‘계[蟹]’와 관련짓는 잘못된 해독이 생겨난 것이다.

오름 모양이 ‘계(蟹)’와 같다는 데서 ‘넙케오름·넙개오름[한글학회(1984), p.391;김종철(1996), 2권 p.101;남제주군(1996), p.558]’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어원에 불과하다. 달리 ‘광칭이오름·광칭이오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서광리’의 옛이름인 ‘광칭이·광칭이’에 있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 4. 마무리

지금까지 몇 개의 제주도 오름 이름을 새롭게 해독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해독이 지나치게 민간어원에 의존했거나 차자 표기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한자에 의존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제주도 오름 이름과 자연마을의 이름 등에 있어서 새롭게 해독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런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대신한다.

훈독자로 쓰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로는 ‘獐/노로’, ‘岳/오름’ ‘水/물’, ‘山/매·미’, ‘簞·簞/바고니’, ‘鷹巖·鷹岩/매바위’, ‘木/남’, ‘草/테역’, ‘沙·莎/살’, ‘浦/개’, ‘曉星·新星·晨星/새벨·새빌’ 등, 동사로는 ‘密/짓-’, ‘廣/넙-’ 등이 훈독자로 쓰였다. 훈독자로 쓰였는지 훈가자로 쓰였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은 ‘城/жат’, ‘淵/춧’ 등이 있다.

훈가자로 쓰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로는 ‘仇·屈·蚰·蟻·豪·軍/굴·골[谷]’, ‘倒·顛·倒·轉·倒·巔/것구리’, ‘鶯/것구리’, ‘末/글’, ‘皮·文/것글·것그리’, ‘月·羅·山·懸·蘿·山·懸·羅·山/돌라미’, ‘南/남’, ‘火·燭·竹/불튼대’, ‘紫·蒲·紫·盃·資·盃/줄피’, ‘蟹/케’ 등, 동사로는 ‘客·孫·遜·手/손-[射]’, ‘啄·琢/쫓-’, ‘板·널-’, ‘黑·감은-’, ‘仍·邑/넙-’ 등, 명사성의 어휘인지 동사성의 어휘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貯·星/더별’의 ‘星/별’, ‘道·圓·道·員/도두리’의 ‘圓·員/도리·두리’, ‘斗·山/말메’의 ‘斗/말’ 등이 있다. 음상으로 볼 때 훈가자로 쓰였으면서도 그 뜻이 확실하지 않은 것에는 ‘夜·莫·夜·莫·只·夜·漠/바매기’의 ‘夜·밤’, ‘栗·岳/밤오름’의 ‘栗·밤’ 등이 있다.

음독자로 쓰인 것은 ‘山/산’이 보일 뿐이다.

음가자로 쓰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로는 ‘笏·老·魯·老/노로[獐]’, ‘巨·口·里/것구리’, ‘沙·只/삿기’, ‘把·古·破·軍/바고니·바구니’, ‘道·內/도너’, ‘長·兀·長·兀·里·嶂·兀/장울·장오리’, ‘弗·吞·大/불튼대’, ‘仇·音·夫·里/굼부리’, ‘毛·瑟·摹·瑟/모슬’, ‘多·郎·時·大·朗·秀·多·浪·秀·月·朗·秀/드랑쉬·다랑쉬’, ‘別·별[星]’, ‘飛·빌[星]’, ‘德·덕·데기’, ‘居·巨·巨·里/케’ 등, 동사로는 ‘今·勿·巨·文/거물-·거른-’, ‘感·恩·可·文/감은-’ 등, 접사로는 ‘伊/-이’ 등이 있다. 음상으로 볼 때, 음가자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뜻이 확실하지 않은 것에는 ‘破·麼·只/바매기’, ‘夜·莫·夜·莫·只·夜·漠/바매기’의 ‘莫·莫·只·漠/매기’, ‘貯·里·別·伊·貯·別·利·佇·別·里·貯·別·伊·貯·別/더리벼리’, ‘道·道·里/도도리’의 ‘道/도’와 ‘道·里/도리’, ‘只·末·指·尾·地·尾/지글’의 ‘只·指·地/지’, ‘末·山/말메’의 ‘末/말’ 등이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고지도 등의 지명 표기에 쓰이는 한자는 분포상 訓假字와 音假字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訓讀字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音讀字는 극히 일부에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명 표기에 한자의 원래 훈과 음과는 상관없는 假字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지명 표기에 쓰인 한자의 해독에 매우 신중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借字 표기 또는 吏讀 표기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한자 지명을 함부로 고유어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 참 고 문 헌 〉

- 강병륜(1990), 「충청북도의 지명어 연구」, 인하대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 강영봉(1994), 「제주 지방의 지명」, 『새국어생활』 제4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6), 「제주시의 오름과 마을의 이름(1)」, 『제주시』 39호, 제주시.
- 고창석(1995), 『탐라국사료집』,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 김봉현(1988), 『濟州島の地名考』, 國書刊行會.
- 김종철(1994), 「오름나그네(1~3)」, 도서출판 높은오름.
-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고유지명』
- 박용후(1992),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제주문화사.
- 배우리(1994),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①~②)」, 토담.
- 송하진(1987), 「제주도의 고유 지명 보편소에 대하여」, 『장태진박사 회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
- (1993), 「삼국사기 지리지 지명의 국어학적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태현(1958), 『삼국사기지리지의 연구』, 우중사.
- 오성찬(1992), 『제주도토속지명사전』, 민음사.
- 오창명(1993), 「제주도 지명 연구사」, 『돌과 바람의 역사』, 제주역사연구회.  
——(1995), 「조선전기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제주도 지명 표기의 연구-조선후기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유창균(1991), 『삼국시대의 한자음』, 민음사.
- 이기문(1991), 「삼국시대의 언어 및 문자생활」, 『한국사상사대계』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제주도(1995), 『제주어사전』.

地名의 借字 表記에 대한 解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1996), 『제주의 옛지도』.

제주시·제주문화원(1996), 『제주시 옛지명』.

진성기(1975), 『南國의 地名 由來』, 제주민속연구소.

최범훈(1980), 「제주도 지명 연구」, 『논문집』 8집, 경기대.

——(1983), 「제주도 특수 지명에 대하여」, 『한국어계통론』, 집문당.

——(1985), 『한국어발달사』, 통문관.

허 응(1974), 『한글과 민족문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현평효(1990),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 언어의 원류」, 『제주문화』 4호, 방송대 제주지역학생회.